

치과내원자의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최유진¹, 권수진²†

¹춘해보건대학 치위생과, ²부산정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Dental Pati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Implant Denture - Focused on South Gyeongnam Province, South Korea -

Yu-Jin Choi¹, Su-Jin Kwon²†

¹*Dept. of Dental Hygiene, Choon 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²*Dept. of Dental Hygiene, Busan College Information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pati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implant denture, as well as to provide exact information for patient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basic data to make patients have positive attitudes to the implant denture. The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who visited dental hospitals located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Korea, from 1 November to 31 December, 2009, the answer sheets from 198 patient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24.2% of respondents had implant dentures put in. Hereat, the t-test and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were performed to analyze respon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implant dentu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knowledge about the implant denture, respondent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what levels of education they had and whether they had the implant dentures put in.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respon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implant denture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respondents, who had a high degree of knowledge about the implant denture,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 it. With the generalization of implant dentures, dental care providers have need to provide exact information about the implant denture for dental patients in order that they may comprehend it and have positive attitudes to it.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the general public with exact information about the implant denture.

Key Words : Implant Denture, Implant Knowledge, Implant Attitude

I. 서론

최근 의학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의 상실, 잔존치조계의 흡수, 불리한 악골 조건 등을 가진 환자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환자의 의치 적응력이 저하되고 의치 제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을 지닌 환자들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초창기 임플란트가 완전 무치악 환자들에게만 사용된 이래로 현재는 단일 치아 결손부의 수복, 부분 무치악의 수복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1].

많은 사람들은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다. 치아가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아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건강 중요성의 인식증대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수복에 있어 자연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 이점과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장점 때문에 점차 그 사용빈도가 증가되고 있다[2][3]. 지난 20여년 동안 치과 임플란트가 활성화 되면서 미국에서만 년 100만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시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산 및 수입품을 포함 30종류 이상의 제품들이 생산·판매되어 연간 5만 여개의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임플란트의 일반화와 활성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4]. 이처럼 임플란트 시술이 치과의료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늘어나는 임플란트 환자수와 비례하여 임플란트에 대한 높은 요구도와 기대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5].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의 높은 요구와 기대에 따른 만족도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며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게 의료진들의 자세한 설명과 노력이 더해질 때 의료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향상된다. 또한 현재 치과의사들의 90% 이상이 임상에서 통상적인 치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으므로 임플란트 수요 증가에 맞춰 그에 따른 환자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는 환자들을 위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현재까지의 임플란트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치과종사자 및 치과위생사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7][8][9], 치과내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유은미 외[6] “치과의료소비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기대도의 관련성”, 류연정[10]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등이 있지만 치과내원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내원자들의 시술경험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잘못된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치과내원자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임플란트 지식의 조작적 정의

일반적으로 지식은 사물에 관한 의식과 ‘안다’라는 의식의 작용과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진실한 믿음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전지식은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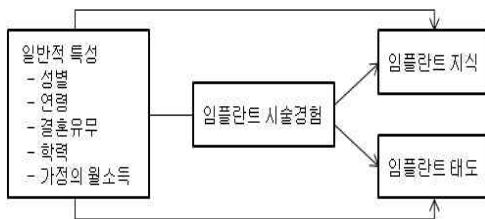
2) 태도의 조작적 정의

태도는 인지, 감정,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보며, 속의 뜻이 드러나 보이는 겉모양을 말한다[8].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환자의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시술을 경험한 환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경남지역의 치과병원에 방문한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22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24부를 제외한 198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5개 문항, 임플란트 시술경험유무 1개 문항,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을 묻는 9개 문항, 태도에 관한 5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지식의 측정도구는 조민정[9]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태도에 관한 도구는 김현정, 최미혜[8]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에 사용한 기법들은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임플란트의 지식과 태도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병원 방문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사항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자	102	51.5
	남자	96	48.5
연령	20대	55	27.8
	30대	57	28.8
	40대	51	25.8
	50대 이상	35	17.7
결혼유무	미혼	58	29.3
	기혼	140	70.7
학력	고졸	85	42.9
	전문대졸 이상	113	57.1
가정의 월소득	400만원 미만	102	51.5
	400만원 이상	96	48.5
임플란트 시술여부	시술	48	24.2
	비시술	150	75.8
합계		198	100.0

조사대상 환자의 성별은 여자가 102명(51.5%), 남자 96명(48.5%)로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30대 28.8%, 20대 27.85%, 40대 25.8%, 50대이상 17.7%이었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70.7%로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57.1%, 고졸이 42.9%였으며, 가정의 월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51.5%, 400만원 이상이 48.5%였다. 임플란트 시술경험은 시술자가 24.2%, 비시술자가 75.8%이었다.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 값(Eigen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2개 추출되었으며, Varimax 회전기법을 이용하여 요인간 적재량을 비교하였고, 선정된 요인에 대해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요인	
	1요인(지식)	2요인(태도)
임플란트 역사 인지	.813	.078
임플란트 종류 인지	.862	.100
임플란트 장단점 인지	.771	.207
타이타늄 성질 인지	.807	.147
임플란트 실패율 인지	.823	.064
임플란트 시술불가 경우 인지	.820	.220
임플란트 시술 과정 인지	.754	.205
임플란트 부작용 합병증 인지	.845	.009
임플란트와 자연치 차이 인지	.801	.139
임플란트의 필요성	.138	.767
임플란트의 높은 수술성공율	.139	.727
임플란트의 전반적 장점	.178	.838
임플란트의 시간대비 장점	.038	.863
임플란트의 비용대비 장점	.115	.773
고유값	6.620	2.746
설명변량	47.285	19.612
신뢰도	.938	.839

<표 2>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자가 의도 하였던 대로 지식 9문항, 태도 5문항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됨을 볼 수 있었고, 지식요인의 신뢰도는 .938이었고, 태도요인의 신뢰도는 .839로 나타났다.

3.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 경험에 따른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모든 항목에서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전체 평균 2.74로 5점 척도의 평균 3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임플란트 시술과정 인지(3.13)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차이 인지(2.98), 임플란트에

대한 장단점 인지(2.93), 임플란트 시술불가 경우 인지(2.90)순이었고,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은 타이타늄의 성질(2.26)에 대한 인지였다.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임플란트의 장단점인지(2.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임플란트와 자연치 차이 인지(2.35), 임플란트 시술불가 경우 인지(2.29)순이었고, 임플란트 역사 인지(2.00)가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는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평균 3.71)과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41) 모두 5점 척도의 평균 3점에 비해 높아 조사대상자들이 임플란트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태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면,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과 시술경험이 없는 집

단 모두 임플란트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3.87, 3.59로 가장 높았고, 태도 항목 중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것은 두 집단 모두 임플란트의 비용대비 장점 3.44, 3.14이었는데, 해당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5점 척도의 평균 3점에 비해 높아 임플란트가 많은 비용이 들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자와 비시술자의 지식과 태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3>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평균 표준편차

영역	항목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		임플란트 시술경험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식	임플란트 역사 인지	2.60	.80	2.00	.82
	임플란트 종류 인지	2.53	.80	2.11	.88
	임플란트 장단점 인지	2.93	.80	2.39	.91
	타이타늄 성질 인지	2.26	.85	2.11	.92
	임플란트 실패율 인지	2.55	.80	2.16	.86
	임플란트 시술불가 경우 인지	2.90	.83	2.29	.91
	임플란트 시술 과정 인지	3.13	.73	2.27	.87
	임플란트 부작용 합병증 인지	2.66	.76	2.12	.84
	임플란트와 자연치 차이 인지	2.98	.77	2.35	.89
	계	2.74	.58	2.20	.72
태도	임플란트의 필요성	3.87	.68	3.59	.83
	임플란트의 높은 수술성공률	3.69	.72	3.35	.75
	임플란트의 전반적 장점	3.75	.70	3.48	.73
	임플란트의 시간대비 장점	3.83	.72	3.51	.78
	임플란트의 비용대비 장점	3.44	.90	3.14	.89
	계	3.71	.55	3.41	.62

* 지식과 태도의 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임플란트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

일반적 사항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			임플란트 시술경험 무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2.73	.52	-1.15 (.885)	2.14	.65	-1.08 (.284)
	남자	2.75	.65		2.26	.78	
연령	20대	2.02	.67	3.84* (.025)	2.16	.84	.98 (.405)
	30대	2.95	.70		2.34	.61	
	40대	2.86	.42		2.08	.48	
	50대 이상	2.70	.50		2.19	.95	
결혼유무	미혼	2.02	.67	-3.19** (.001)	2.24	.79	.57 (.571)
	기혼	2.82	.51		2.17	.68	
학력	고졸	2.71	.54	-3.61*** (.000)	1.97	.55	-3.61*** (.000)
	전문대졸 이상	2.77	.62		2.36	.78	
가정의 월소득	400만원 미만	2.65	.46	-.83 (.409)	2.19	.69	-.11 (.911)
	400만원 이상	2.80	.65		2.21	.76	
합계		2.74	.58		2.20	.72	

*p<.05, **p<.01, ***p<.001,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

일반적 사항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			임플란트 시술경험 무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3.73	.58	.21 (.885)	3.43	.59	.44 (.661)
	남자	3.70	.54		3.39	.66	
연령	20대	3.60	.28	.50 (.684)	3.42	.68	.28 (.841)
	30대	3.69	.54		3.45	.50	
	40대	3.64	.66		3.42	.59	
	50대 이상	3.85	.50		3.29	.81	
결혼유무	미혼	3.60	.28	-.48 (.633)	3.44	.66	.37 (.709)
	기혼	3.73	.58		3.40	.60	
학력	고졸	3.74	.56	.33 (.743)	3.35	.74	-1.05 (.295)
	전문대졸 이상	3.69	.56		3.46	.53	
가정의 월소득	400만원 미만	3.74	.54	.26 (.796)	3.33	.60	-1.70 (.091)
	400만원 이상	3.70	.57		3.51	.64	
합계		3.71	.55		3.41	.6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연령과 결혼유무에 따라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는 30대(2.70), 40대(2.86), 50대 이상(2.70)이 20대(2.02)에 비해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

았고(p<.05),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자(2.82)가 미혼자(2.02)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졸 이상(2.80)이 고졸(2.71)에 비해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표 6>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p	R ²
지식	(Constant)	1.93	.49		3.97	.000	.161
	성별	.17	.11	.11	1.51	.132	
	연령	.04	.07	.05	.53	.596	
	결혼	.03	.17	.02	.17	.863	
	학력	.29	.08	.26	3.43	.001	
	수입	.00	.00	-.02	-.30	.762	
태도	(Constant)	3.77	.40		9.37	.000	.032
	성별	.05	.09	.04	.56	.577	
	연령	.01	.06	.03	.23	.817	
	결혼	-.10	.14	-.07	-.69	.491	
	학력	.04	.07	.04	.52	.602	
	수입	.00	.00	-.01	-.08	.934	
	시술경험	-.22	.11	-.17	-2.04	.043	

더미변수 : 성별(남0, 여1), 결혼(미혼0, 기혼1), 시술경험(시술0, 비시술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는 모든 항목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3.71), 시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3.41)에 비해 임플란트의 효용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에는 학력과 시술경험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에는 시술경험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치과내원자들의 시술경험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하여 잘못된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치과내원자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102명(51.5%), 남자 96명(48.5%)로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30대 28.8%, 20대 27.85, 40대 25.8%, 50대이상 17.7%로 구성되어 비슷비슷한 비율이기는 하지만 30대가 치과치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70.7%로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57.1%,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고, 가정의 월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51.5%, 400만원 이상이 48.5%로 치과내원자들의 월소득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치과치료가 보철 등 비급여형태의 진료료가 많아 진료수가 보편적으로 비싸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한 결과로 보여진다. 임플란트 시술여부는 시술자가 24.2%, 비시술자가 75.8%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보편화[6] 되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보존이나 일반적 보철치료와 같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비용, 수술에 관한 부담 등 여러요인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모든 항목에서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전체 평균 2.74로 5점 척도의 평균 3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임플란트 시술과정 인지(3.13)가 가장 높았고,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은 타이타늄의 성질(2.26)에 대한 인지였다.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임플란트의 장단점인지(2.39)가 가장 높았고, 임플란트 역사 인지(2.00)가 가장 낮았다.

비슷한 대상의 연구로 유은미 외[6]의 분석결과로는 임플란트의 부작용 및 합병증의 인지도가(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치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권숙[7]의 연구결과 (평균 3.67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현정[8]의 연구결과(평균 3.05점), 조민정[11]의 연구결과(평균 3.50점)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치과종사자나 치과위생사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많아서일 것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수준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환자에게 역사나 재료의 구체적 성질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는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평균 3.71)과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41) 모두 5점 척도의 평균 3점에 비해 높아 조사대상자들이 임플란트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태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과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 모두 임플란트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3.87, 3.59로 가장 높았고, 태도 항목 중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것은 두 집단 모두 임플란트의 비용대비 장점 3.44, 3.14이었는데, 해당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5점 척도의 평균 3점에 비해 높아 임플란트가 많은 비용이 들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현정[8]의 연구결과(평균 3.76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현정의 연구에서는 태도구성항목 중 시술 후 주기적인 정기검진의 필요성(평균 4.6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평균4.38점), 조사대상에 상관없이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태도항목 중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것은 임플란트의 비용대비 장점이었는데, 이것은 임플란트의 비용이 비싸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지만 해당항목에 대해서도 평균점수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임플란트가 많은 비용이 들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t-test와 ANOVA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연령과 결혼유무에 따라 시

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는 30대(2.70), 40대(2.86), 50대 이상(2.70)이 20대(2.02)에 비해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았고($p<.05$),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자(2.82)가 미혼자(2.02)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졸 이상(2.80)이 고졸(2.71)에 비해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유은미[6]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직업에 따라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안권숙[7]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김현정[8]의 연구에서는 근무처, 근무경력, 월평균소득, 시행여부, 시행횟수, 교육경험, 교육횟수, 교육시간에 따라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각 연구에서 대상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임플란트 지식인지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는 모든 항목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3.71), 시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3.41)에 비해 임플란트의 효용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에는 학력($p<.01$)과 시술경험($p<.001$)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을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임플란트에 대한 태도에는 시술경험($p<.05$)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통계학적인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 나아가 구강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서일 것이라 생각되며 임플란트

시술경험을 이미 한 사람일수록 임플란트에 관한 정보나 교육을 접한 기회가 많고, 동기유발이나 필요성 등이 막연하게 접한 일반인보다 지식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오늘날 임플란트가 점차 대중화 및 양적으로 확산되는 지금 현재 치과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가 단편적이고 미흡하여 오히려 환자들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등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치과내원자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어 성공률과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 및 관리자들이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들에게는 임플란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성공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제품홍보 및 마케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둔 포괄적인 교육이 확대되어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임플란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경남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그 대표성에 한계를 지니며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대상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며, 지식 및 태도 항목 선정에 있어 기존의 연구도구를 활용하였으나 태도의 항목을 평가하는 방향성이 명확치 않은 경향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조춘일, 조인호, 문은수(2009), 치과 임플란트 환자의 통계 분석에 관한 후향적 연구, 대한치과보철

- 학회지, Vol.47(3);266-272.
2. 양재호(1998), Two-Part III Implant(Bonefit)를 이용한 하악 구치부 수복에 관한 8년간의 임상적 연구, 대한치과이식학회지, Vol.17(1);71-79.
 3. 전우진, 김수관, 하정완, 김문수(2003),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T개 years retrospective study,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29(4);257-260.
 4. Carl E. Misch(2000), 최신 임플란트 치과학 제2판, 나래출판사, pp.84-92.
 5. Park HR (2007), A study on recognition of dental implant of dental patient in the city of Jin-ju,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7(3);285-296.
 6. 유은미, 심현주(2010), 치과의료소비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기대도의 관련성, 한국치위생과학회, Vol.10(4);219-225.
 7. 안권숙(2007), 치과종사자들의 치과 Implant에 대한 지식 및 이행실태,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Vol.7(4);481-493.
 8. 김현정, 최미혜(2003),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중앙간호논문집, Vol.7(2);57-66.
 9. 조민정(2001),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45.
 10. 류연정(2004),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접수일자 2011년 5월 20일

심사일자 2011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3일